



신범수

전남, 20일 안양 원정 승점 사냥 나선다

재정비 시간을 보낸 전남드래곤즈가 안양 원정에서 승점 사냥을 재개한다.

전남은 20일 오후 6시 30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K리그2 14라운드 FC안양과 경기를 갖는다. 앞선 부천 원정에서 2-5 패를 기록했던 전남은 휴식라운드를 보내면서 재정비 시간을 가졌다.

전남은 올 시즌 4승 2무 8패(승점 14)로 리그 8위다. 올 시즌에도 득점력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12경기에서 15득점을 한 전남은 21실점을 하면서 득실차에서 -6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은 휴식기간 중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특히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과 자신감 회복에 주력했고, 멘탈코칭을 통해 팀 응집력 강화에도 나섰다.

이번에 만나는 상대 안양은 승점 21점(6승 3무 3패)으로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우형 감독이 이끄는 안양은 백동규, 박종현, 이창용의 쓰리백을 내세워 박재용, 안드리고로 전남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재충전을 끝낸 전남에는 새 전력도 있다. 재합을 끝낸 중원 미드필더 신일수와 중앙수비수 최정원이 필드로 합류, 중원 싸움을 위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이장관 감독은 “선수단 전원이 일심동체가 돼 안양 원정경기를 임할 것이다”며 “모든 팀들과 한번씩 경기를 마쳤다. 이제부터 진정한 순위경쟁이라고 생각한다. 승점 3점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걸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좋은 타이밍에 휴식을 보낸 전남이 안양과의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낼 지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준호 중국에 구금 … 최대 5년 징역 살수도

승부 조작 등 비위 조사

중국에 구금 중인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에 대해 5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도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17일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손준호가 최대 5년간 감옥에 있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손준호는 현재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라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 조사를 받고 있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 수사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괴죄 혐의로 형사 구류됐다”고 밝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괴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권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행위 요청을 받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손준호는 2021년부터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으며 최근 이 팀의 하오웨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승부 조작 등 비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시나닷컴을 통해 “외국인이거나 중국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중국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비국가공작인원 수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감취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이는 형법 제163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시나닷컴은 “손준호는 중국 축구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라며 “중국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예전에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50만위안(약 9천500만원)에 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인보 교수는 “이 죄의 경우 5년 이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포수 신범수 “혼을 실어 공 잡았다”



기다림 끝에 올 시즌을 연 포수 신범수가 “혼을 실어 공을 잡았다”며 웃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6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황대인과 소크라테스의 홈런포를 앞세워 2-8 역전승을 거두고 5연패에서 탈출했다.

포수 신범수가 시즌 첫 경기에 나서 연패 탈출을 확정하는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다.

기본 좋은 승리로 2023시즌을 연 신범수는 “경기 나가라는 지시를 받고 심장이 뛰었는데 막상 나가 보니 재미있었다. 혼신을 다해서 공을 잡았다”며 “타석에서는 오승환 선배를 만났는데 초구에 최대한 자신있게 (배트를)돌리자는 생각이었다. 타구가 잡혔지만 타이밍이 잘 맞아 다음 타석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연패를 끊은 게 좋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KIA는 한승택과 주효상, 두 포수로 시즌을 열었다. 새 얼굴 주효상은 지난 가을 현역에서 제대한 만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KIA는 지난 14일 포수 엔트리에 변화를 줬고, 신범수가 합류했다.

그리고 16일 KIA가 7회 대거 7점을 뽑았고, 신범수가 대타로 교체된 한승택을 대신해 7회말 포수 마스크를 썼다.

시즌 첫날 신범수는 최지민·임기영·장현식과 호흡을 맞췄고, 최지민의 프로 첫승 현장에 함께했다.

삼성전 시즌 첫 출전 연패 끊어

KIA 포수 많지만 철저히 준비

하루하루 최선 후회 없이 하겠다

신범수는 “잡하려는 마음이 커서 2군에서 생각만큼 잘 안됐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컨디션이 올라왔으니까 어필하도록 하겠다”며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기회를 주겠다고 생각한다. 방망이도 잘 치면 좋은 선수지만 수비가 안 되면 경기가 풀리지 않으니 그 부분에서 준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신범수는 지난해 와일드카드 결정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큰 무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신범수는 ‘준비’를 키워드로 삼았다.

안방을 굳게 지키던 박동원이 FA로 이적하면서 기회가 문은 넓어졌지만, 주효상의 트레이드와 한준수의 전역 등으로 한편으로는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신범수는 “지난해 감독님께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올 시즌 개막엔트리를 목표로 했지만 진짜 목표는 ‘준비를 잘하자’였다. 언제 올라가더라도 ‘준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며 “2군에서 잘 안 풀리니까 마음이 급해졌

는데 수비 준비를 많이 했다. 기회가 오면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지 않게 하자는 마음이었다”고 이야기했다.

KIA 선수들은 올 시즌 기대감으로 높은 고지를 보고 있다.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신범수도 기대감이 크다. 1군 마운드가 안정감 있게 돌아가고 있고, 2군에서도 다양한 개성의 선수들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신범수는 “지민이도 그렇고 현식이 형도 공이 좋았다. 로테이션대로 마운드가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2군에도 개성 있는 좋은 투수들이 많다. 기대가 된다”며 “1군 와서 (한)승택이 형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다. 포수들이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투수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다. 옆에서 많이 도우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다렸던 기회를 얻었지만 목표는 없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신범수의 설명.

신범수는 “목표라기 보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하자는 마음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KIA에 포수가 많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오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올라올 때 2군 동료들, 코칭스태프, 프런트 모두에게 응원을 많이 받았다. 후회 없이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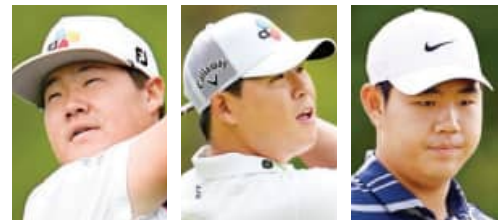
임성재·김시우·김주형 메이저 사냥

PGA 챔피언십 오늘 개막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이자 올해 마스터스 챔피언 온 람(스페인)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 1, 2라운드에서 LIV 리그 소속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같은 조에서 경기한다.

17일(한국시간) 발표된 PGA 챔피언십 1, 2라운드 조 편성을 보면 람은 스미스,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과 같은 조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PGA 챔피언십은 18일 밤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의 오크힐 컨트리클럽(파70)에서 막을 올린다. 람이 속한 조는 18일 오후 9시 33분 10번 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다.



임성재

김시우

김주형

이번 대회엔 LIV 소속 선수 17명이 출전해 지난날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 이어 PGA 투어 선수들과 자존심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계 1위인 람이 속한 조부터 양측 선수가 함께 포함됐다.

이 조는 최근 3개 메이저대회 우승자의 조합이

다. 람은 올해 마스터스, 스미스는 지난해 7월 디오피 챔피언십, 피츠패트릭은 6월 US오픈 우승자다.

최근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대회에서 대역전 우승으로 기세가 오른 한국의 간판 임성재는 크리스 커크(미국), 제이머스 파워(아일랜드)와 19일 오전 2시 42분 10번 홀에서 출발한다.

지난주 AT&T 바이런 넬슨에서 준우승한 김시우는 스테판 예거(독일), 아니르만 라히리(인도)와 한 조에 편성됐고, 김주형은 샘 번스(미국), 아브라함 안세르(멕시코)와 동반 플레이에 나선다.

이경훈은 톰 호기(미국), 라이언 폭스(뉴질랜드)와 경기하며, 2009년 이 대회 챔피언 양용은은 웨브 심프슨(미국), 대니 윌렛(잉글랜드)과 함께 대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터 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17일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에서 열린 AC 밀란과 2022-2023 UCL 준결승 2차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루카쿠와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 밀란, UEFA 챔스 결승 진출

AC 밀란에 합계 3-0 승리

6월 11일 이스탄불서 결승전

인터 밀란(이탈리아)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에 선착했다.

인터 밀란은 1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2022-2023 UCL 준결승 2

차전에서 AC 밀란(이탈리아)을 1-0으로 물리쳤다.

11일 1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둔 인터 밀란은 1, 2차전 합계 3-0으로 앞서 결승에 먼저 올랐다.

인터 밀란의 결승 상대는 18일 열리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경기 승자가 된다.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

는 레알 마드리드의 홈 경기로 열린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올해 UCL 결승은 6월 1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펼쳐진다.

1차전 승리로 한결 여유 있는 상태에서 2차전을 시작한 인터 밀란은 후반 29분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결승 골로 2차전에서도 이겼다.

로멜루 루카쿠의 패스를 받은 마르티네스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원발 슈팅으로 이날 경기 유일한 득점을 뽑아냈다.

이로써 인터 밀란은 2009-2010시즌 우승 이후 13년 만에 UCL 결승에 다시 올랐다. /연합뉴스